



함께 크는 우리 아이



10월 21일(일) 대구공동육아연합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 씩씩한어린이집, 해바라기방과후 아마투라 교사, 아이들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4
터전소식/23
대기자 설명회 후기/26
날적이 훑아보기/30
편집후기/31

2012.11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병실에서

정범철(해바라기 해군, 수아 아빠)

병실생활 15일째. 3년 전에 십자인대 재건수술로 두 달 정도 입원해 본 적이 있어 병원 생활이 익숙하리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따분하고 심심하다.

첫날 입원을 하니 7개의 병상에 3명만이 누워 있었다. 외과 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내과 병동에 입원을 했다. 3명뿐이어서 조용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다, 심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 낯설고 어려워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병원이곳저곳 탐색도 해야 하고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어디 있는지도 물어 봐야한다. 병상 고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려 하고 사람들과 친해지려 해야 빠른 시간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하루이틀 지나고 조금 익숙해지고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 가면 재미도 있고 또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항상 불만인 사람도 있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교적인 사람도 있다. 다만 나이대가 나보다 많은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라서 약간의 시각차와 세대차 느껴지는 게 좀 불편했다. 쉽게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말하고 싶지만 괜한 논쟁이 될 듯도 하여 그냥 조용히 들으면서 맛장구 쳐주는 정도로 며칠을 보냈다. 중

요한 것은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육아 1년차 때처럼.

정확한 시간에 밥이 나오고 9시반정도 되면 불을 끄고 6시반정도 되면 일어난다. 물론 나의 패턴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이 시스템에 적응되기 시작했다. 음료수도 나누어 먹고 농담도 주고 받으며 좀 친해졌다 싶을 때쯤 퇴원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입원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 입원하는 사람들은 처음의 나처럼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기저기 탐색을 하고 먼저 대화에 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병상선배들이 먼저 신참환자들에게 말을 걸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알려주고 해야 신참들이 빨리 적응한다는 것이다. 공동육아 2, 3년차 때처럼.

2주만에 모든 것이 익숙해졌는데 병실 생활을 돌아보면 6년의 공동육아 생활이 2주안에 다 집약돼 있는 듯하다. 사실 이제는 터전의 행사나 활동에 조금 무관심해졌고 귀찮아지기도 했다. 예전에는 고참들이 왜 저렇게 잘 활동을 안 하지 하면서 속으로 욕도 했었는데 돌아보니 내가 지금 그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다시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며 그때처럼은 아니더라도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활동을 보여 주어야겠다고 병상에 누워 생각해 본다.

중요한 것은, 뭘까? **☞**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

씩씩한 어린이집 10월 교육평가, 11월 교육계획

조윤정, 노승복, 정현주, 황태순, 김지영, 정미향
(체리, 나비, 아침, 벚꽃, 피터팬, 돌고래)

11월 교육계획

- 이 달의 주제 : 계절의 변화
- 이 달의 세시와 절기 : 입동, 소설
- 이 달의 노래 : 애벌레, 나무결에 내마음
 딱지 따먹기
- 전래놀이, 전래동요 : 딱지 따먹기, 비석
 치기, 사방치기, 놀이(한숨에 배우는 노래)

■ 교사회 일정

출근시간

- 07:30 벚꽃
- 08:30 피터팬
- 08:40 나비
- 09:00 체리
- 09:30 돌고래
- 09:50 아침

■ 교육 및 회의

- ~ 9(금) 피터팬 승급교육종강
- 9(금) 하반기전체대표교사교육(체리)
 대구지역교사모임(아침)
- 13(화) 지역대표자회의(아침)
- 16(금)~17(토) 대구지역교사회워크샵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 17(토) 교육실제과정종강식(아침, 체리)

23(금) 교사 긴 회의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 * 매주 금요일 혹은 목요일 주 점검 회의
(낮잠시간 이용)

■ 행사

1(목)~2(금) 들살이

(※2일-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9(금) 조합원교육(고산초 예지관)

■ 전달사항

- * 9시 50분 등원시간 꼭 지켜주세요
- * 소등 및 문단속 주차선 지키기 등 기본적인 약속들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 아이들의 바깥놀이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니 차량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차가 터전입구까지 들어오고, 차를 돌려 나가고 있습니다.)
- *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가실 때 터전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도 보실 겸,,, 아이들의 바구니도 매일 확인해 주세요.
- * 전체적으로 날적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해도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이들의 일상을 날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보세요.

■ 차량아마 요청

〈태권브이방, 상어방〉

〈도담방, 가람방〉

11/9 (금)- 경주 계림숲 (기차이용)

11/6 (화)- 월드컵 경기장

- 출발 (하양역 9시49분)

- 도착 (하양역 2시44분) 

■ 11월 일정

	월	화	수	목	금
1주				1~2 들살이 (고령개실마을)	
2주	5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6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이루다 생일	7(입동) 전체나들이 기차산	8 연령별 모임	9 연령별모임 안전교육 단기 모듬 홍소정 생일
3주	12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13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14 전체나들이 도토리길 꼬불길 긴계단(고산중)	15 연령별 모임 선화통합활동	16 연령별 모임 기본생활교육 단기 모듬
4주	19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20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이규언 생일	21 전체나들이 증심사 솔밭길	22(소설) 연령별 모임	23 연령별 모임 먹거리교육 단기 모듬
5주	26 차 모듬 각 방 나들이	27 대동놀이 각 방 나들이	28 전체나들이 헬스산 등산길	29 연령별 모임 선화통합활동 강유채 생일	30 연령별 모임 소방교육 요리활동 (유자청만들기) 단기 모듬
메모	♥ 수요일 전체 나들이 장소는 날씨와 자연물의 변화에 따라 주차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람방 돌아보기

김지영(씩씩한, 피터팬)

※ 방구성원

5세 : 오은준, 안승우, 이루다

6세 : 송준서, 성도연, 김윤아

7세 : 이시훈, 권오빈, 박주하, 박연수, 홍소정

※ 가람방 돌아보기

10월 한 달 가람방은 천을산 나들이와 매호공원, 왕놀이터를 다녀왔다.

가을이 오면서 점점 물들어가는 나뭇잎과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밟고 주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목적지는 정해졌지만 꼭 도착해야한다는 의무보다는 가는 과정에서 찾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소정리와 연수, 윤아는 비닐봉투에 나뭇잎을 모아 오기도 하고 주하와 도연이는 언제나 그랬듯 함께 붙어 다니고 챙겨주는 모습들이었다.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다정하게 소꿉놀이를 하는 승우와 루다, 시훈이와 오빈이 형들 속에 있는 은준이.

※ 기본생활교육-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

나들이를 가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갈 일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6, 7세 아이들의 경우, 버스를 탈 때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고 버스가 오면 뛰어가지

않고 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한 줄로 서서 탄다, 버스에 타고 난 다음 자리에 앉아 일어서지 않고 소곤소곤 이야기 한다 와 같은 기본적인 규칙들에 대해 다들 잘 알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형님들이 입을 모아 너도나도 이야기 하니 5세 아이들도 덧붙여 규칙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평소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들이를 가기 전 상기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 5세- 보석방 이야기

10월 한 달은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많았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콧물, 기침을 하며 힘들어 했다. 특히 낮잠 잘 때 코가 막히거나 기침을 수시로 하니 자다 깨다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래모임이 주2회로 늘어나면서 금요일 아침이 되면 하선이가 다가와 “오늘 아라방이야? 보석방이야?” “보석방이지” “오예~”하며 승우와 또래 아이들과 지낼 생각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태권V방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도담방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며 두 방이 함께 가니 놀이가 더 확장되고 아이들도 더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어린이 회관을 갔을 땐, 모여 있는 비둘기 사이로 질주하며 비둘기를 쫓아내고 따라가는 모습들, 잔디밭에 누워 똥굴똥굴, 놀이방에선 낫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며 함께 노는 모습들, 100원 넣고 타는 놀이기구도 “한번 더~한번 더~”를 외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들이었다. 

마루방 돌아보기

정현주(씩씩한, 아침)

※ 방구성원

5세- 박채희, 신차람, 이상화, 이수하

6세- 이규언, 이윤서, 이하람

7세- 김민소, 박찬홍, 이현민, 안혜승

※ 마루방 돌아보기

아침에 터전에 들어서면 ‘아침! 바깥에 나가자!’는 말을 시작으로 10월에도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끝없이 분주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라더니 아이들의 놀이도 가을이 깊어가며 나무들이 준 낙엽과 작으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텃밭과 화단의 자연물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더 없이 풍성하게 해 주었다. 아침 시간의 바깥놀이는 야구가 꾸준히 인기를 이어 오고 있고, 화단에 결명자 따기, 상추 씨앗 뿌리기, 작살나무 열매 따기, 맨드라미(달구벌실꽃)씨앗 받기, 배추 밭에 물 주기, 배추 애벌레 잡기, 텃밭 독에서 검객 놀이 하기, 낙엽 쓸어 모으기, 낙엽 뿌리기, 앞집 동우빌 아저씨와 모래 쓸기, 텃밭 자리 공사 구경하기, 도토리 팽이 만들기, 낙엽으로 역할 놀이 하기가 한창이다.

오후 자유놀이 시간에는 대근육 운동은 힘에 부치고 관심이 적은 아이들을 바깥놀이에 참여 시키고자 사방치기를 시작 했다. 공간이 여의치 않아 야구팀 뒷 쪽으로 은혜교회 앞에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 물로 선을 그어 사방치기틀을 그리고 자기 비석을 찾아오는 것으로 놀이를 시작하였는데 윤서와 민소, 혜승이가 먼저 시작을 해서 시훈, 현동, 문경, 채원이도 합류하여 물이 지워지면

자기들이 선을 직접 그어 가며 사방치기의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배드민턴 하기, 긴 줄넘기, 결명자 까기, 요리 활동한 호박 껍질로 가면 만들기,(화단에 결명자와 꽃이 지고나니)나뭇잎으로 삼겹살 굽기 놀이등 낙엽으로 역할 놀이와 변함 없는 인기를 유지하는 모래놀이가 한창 이다.

넉넉치 않은 공간에서 여러 놀이를 하려니 간간이 다툼과 갈등이 있던차에 물로 사방치기틀을 그리는 것을 계기로 물뿌리개로 선을 그어 공간을 분리하여 놀이를 하고 있다. 벽화 앞은 야구, 야구팀 뒤쪽부터 은혜교회 앞은 사방치기, 야구팀 옆쪽 동우빌 앞쪽 보도와 사방치기옆 재활용 용기 앞쪽은 자동차(자전거)길, 노란선 안쪽까지는 회차로 나름의 규칙들을 만들며 놀고 있다.

야구팀은 야구 방망이를 잃어 버린 이후로 빗자루를 방망이 대신 이용하고 있는데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방망이 보다 빗자루 면이 넓어 공이 더 잘 맞는다’고 한다. 야구 방망이를 잃어버린 후로는 공이 없으면 곧바로 경기를 중단하고 공을 찾아 나서고 운동기구가 담긴 통을 들고 나가서 놀다가 놀이가 끝나면 들고 들어와 간수하고 있다. 하루는 야구팀 모두가 터전 주위를 살살이 뒤져도 찾지 못해 애태우며 들어 왔는데 오후에 오빈이가 공을 찾아 야구팀은 오빈이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10월에는 마루방과 훌치기 염을 시작 했는데 의외로 염색 과정이 길어져 선 매염을 해놓고 나들이를 가려니 연못가와 왕놀이터 등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었다. 쪽두서니와 소포넛은 붉은 빛이 나는 염료인데 염색을 하니 손과 염료를 담은 그릇은 붉은 빛이 나는데 손수건은 황토빛에 가까운 색이 나와 아이들이 ‘염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며 ‘다시 잘 보고 해보자’ 한

다. 폭포길에는 호랑거미와 꽃매미가 많아 아이들이 즐겨 살피고, 이곳을 지날 때는 달리기를 주로 한다. 꿀통 옆길의 아까시나무 가시는 직접 따서 코에 톡하니 올려 코뿔소를 만들어 보여 주고, 꿀통 옆길의 코스모스는 따서 헬리콥터 만들기를 하며 논다.

10월들어 윤서, 하람, 규언이가 2층에서 숨기 놀이에 재미를 붙여 인기척이 나면 책방 책상 밑에 숨어 있어서 간식시간, 모듬시간, 점심시간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왕 놀이터에 가는 날은 장난기가 발동해 앞서가서 전체 아이들과의 거리 차이가 커서 불러도 멈추지 않고 길을 건너려고 해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기와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기에 대해 나들이길에 모여 앉아 의논을 하고 가기도 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7세에 가까워지는 6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도시락을 준비한 전체 나들이 날에는 정사에서 점심 후에 달리기, 도토리 줍기, 나무 잔가지 격파하기, 기차 놀이, 손뼉치기를 하며 여유롭게 놀다 왔다. 도토리길- 기차산 나들이는 아이들의 놀이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원하는 아이들만 기차산을 다녀오고 도토리길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도토리 줍기 나뭇잎 줍기를 하며 길게 놀다 왔다.

점심 시간은 늘상 할 이야기가 많고 늦게 식사 마치고 마루방이 전체적으로 식사시간이 당겨져 아침이 일찍 상을 정리하는 날도 있고, 식사 시간이 긴 찬홍, 민소, 하람이의 식사 시간은 눈에 보이게 짧아 졌다. 식사와 양치 후 놀이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상화는 최근들어 앵무새 놀이하는 듯 '상화야 밥 다 먹었나?' 하고 물으면, 자기도 말장고 능청스럽게 '상화야 밥 다 먹었나?'며 말따라하기에 재미를

붙였다. 채희, 차람이와 수아는 좀더 자신의 감정 표현을 충실히 지내며 애교 많던 차람이와 채희는 점점 시니컬함이 느껴진다.

'잠 안자고 몸쉬기만 해도 되지?' 자주 묻는 현민이는 오는 잠을 못 이겨 하루도 자지 않은 날이 없다. 옆집 텃밭 공사로 벽면 콘크리트 작업소음이 심해 찬홍이와 윤서, 혜승이가 10월에는 낮잠을 못 이루기도 했고 낮잠드는 시간이 늦어 지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잠들면 일어나기 힘든 마루방 잠꾸러기들은 뜨끈한 방바닥과 단잠에서 깨어나기 아쉬워 10자(3시50분)까지 누워서 여유부리다가 후다닥 이부자리 정리하고 간식을 먹으러 간다.

10월 마루방은 모두가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더 재바르고 분주하게 놀고 시끌벅적하고 지냈던 것 같다.

※ 먹거리 교육 - 색소 실험과 사색 꽃산병 만들어 먹기

천연색소(오미자, 포도즙, 녹차가루, 당근즙)과 인공색소(딸기맛, 메론맛 사탕, 오렌지맛 환타)를 유리병에 녹여 양모실을 넣어 20분간 증탕으로 가열하여 염색하는 동안 사색 꽃산병을 만들어 먹었다.

사색 꽃산병은 미리 찌든 백설기에 4색(오미자, 포도즙, 녹차가루, 단호박)천연 색소를 넣어 색을 낸 다음 떡을 빻어 꿀에 찍어 먹으며 천연 감미료(꿀, 조청)가 사탕과 같은 단맛을 내는 대체 식품임을 자율적인 분위기로 나누어 보았다.

떡을 먹고 염색된 양모실을 물에 씻어 살펴보았을 때 천연색소에 담긴 양모실은 염색된 것이 물에 잘 씻기고 인공 색소는 염색된 체로 잘 씻어지지 않는 것의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색소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

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 이었다.

색소 실험은 인공 색소의 해를 알리는 실험으로 공장에서 만든 여러 가지 유혹의 음식들을 제한 하자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천연 색소의 종류를 알아보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함께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음식을 골라 먹자거나 유해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 전달을 최대한 제한 하였다.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판단을 하고 흥미 위주의 교육방법과 반복되는 일상에서 서서히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 6세- 상어방 이야기

10월 상어방은 월드 메르디앙 놀이터에서 잡기 놀이, 자연 과학고 전체 나들이,터전에서 편지 쓰고 모래 놀이 하기, 청도 나들이, 대구지역 공동육아 연합 나들이, 연못가등분주히 나들이를 다녀왔다.

청도 나들이에는 흰둥이(하람 엄마)와 문경아빠가 동행아마를 하셨는데 문경 아빠는 멋지고 잘 생겼다고 아이들이 '멋진맨'으로 별명을 지어 드렸다. 청담 갤러리를 가는 길에 말과 소, 고양이, 강아지를 볼 수 있어 즐거운 한 때를 보냈고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이라 여유롭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었다. 아이들이 간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오니 서로 나눠 먹는 모습에서도 여유가 있고 친구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니 아이들은 더 편안하게 잘 놀았던 것 같다.

4주에는 '우리가 해보기로 한 것 중에 뭐 안해 봤어?'라며 아이들이 묻더니 어린이 회관, 월드컵 경기장 중 바로 갈 수 있는 곳은 기차산이라 기차산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폭포길 옆에서 산을 오르는 뱀도 보고, 아까시나무 가시로 코뿔소도 만들며 가던

중 꿀통 옆길 수로에서 하람이가 달팽이를 잡아 올라오는 것을 계기로 나들이 시간 내 한 자리에서 놀았다. 하람이가 상어방 모두에게 달팽이를 한 마리 씩 잡아주어 그 자리에서 달팽이를 옷에 붙이고, 먹이를 주고, 이름을 지어주며 길에 엮드리고 엉덩이 퍼질러 앉아서 놀았다. 돌아 오는 길에 '기차산을 못가서 어찌지?' 라고 물으니 '괜찮아 이곳에서 달팽이랑 실컷 놀았어'라고 말한다. 터전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달팽이 통을 하나씩 달래서 주었더니 2~3명씩 한 곳에 넣고 같이 쓰기도 하고 낮잠을 자고 나서도 돌보고 집으로 가져 가기도 했다.

달팽이와 아이들의 말, 말, 말

하람-(다리 똥똥 걷고 수로에서 달팽이를 잡으며 짜증 가득한 소리로) 아~진짜! 다 잡아줬는데 송준서가 달팽이 다시 잡아 달라고 해서 신발 다 젖었다.(계속 달팽이를 잡으며) 아~ 진짜 내가 니한테 달팽이 다 잡아 주면 될 거 아이가 진~짜!

윤서-(달팽이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하람아. 얼굴 나오게 해줘 하람아

하람-(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얼굴 나오게는 못한다.

윤서 -나는 왜 얼굴 없는 거 주노?(수로에 발을 내려 놓을지 말지를 망설이며) 거기 내려가도 안전 한 거야?

지호-(어제와 달리 수로에 내려가 달팽이를 잡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며)달팽이를 키우려면 흙을 한 달에 한 번 씩 갈아 주어야 하고 장수 풍뎅이처럼 물도 뿌려 주고, 먹이도 주어야 하는 데 달팽이가 두부도 먹더라

영윤-(손목 위 팔에 있는 달팽이를 보고) 총각은 위에서 놀고(손등에 있는 달팽이를 보고) 아가씨는 밑에서 놀고

윤아 -(달팽이를 보며) 코스모스도 먹는다.

주황색 먹으면 신기한 야광똥 산다.

문경- (윤아에게)니 달팽이 내 손위에 올려보라. 아~! 손위에 똥 샀다. 그런데 짹짹한다.

도연- (손바닥의 물달팽이를 보여주며)달팽이 아니고 물 달팽이니까 물에 보내줘야겠다. 물달팽이는 물에서 산다.

문경-나는 달팽이 보내줘야지 불쌍해서 보내 줘야지

윤서- 오늘은 달팽이가 불쌍해서 살려 주고 왔다

준서- 잘 보살펴 주면 안 불쌍하다 우리 같이 키울래?

규언- (싱긋 웃으며 달팽이를 내 코앞에 내밀며) 아침! 달팽이도 이제 터전에 가야지?.

금요일 요리 활동을 마치고 연못가로 나들이를 가다가 수로에서 또 다시 달팽이 잡아서 그 자리서 놀았다. 터전으로 데려와서 키우고 있고 몇몇은 집으로 가져갔는데 집에서는 달팽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라방 돌아보기

황태순(씩씩한, 벚꽃)

◎ 방구성

김채원(7), 김현동(7), 문환주(7), 박찬종(7), 김지호(6), 장문경(6), 최영윤(6), 이서영(5), 박성희(5), 송하선(5), 조승주(5)

◎ 아라방 돌아보기

◎ 2012년의 남은 달을 잘 마무리 하자. 기본생활을 점검해 보는 하반기가 되자.

- 청결(이 닦기, 손 씻기)
- 정리정돈(내 바구니 정리, 옷 개어 넣기, 놀고 난 자리 치우기)
- 식습관(음식의 소중함 알기, 반찬 골고루 먹기,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덜어 먹기)
- 예절(인사 잘 하는 아이,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기)
- 안전한 터전 생활(계단 걸어서 오르내리기, 화장실 사용)
- 친구관계(우리 방 친구들 뿐 아니라 터전 친구들 모두 사이좋게 지내기)
- 교사와 아이(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이 편하게 안길 수 있도록 한다.)

“난 봄이 좋아. 왜냐면 봄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 피거든.” “수영할 수 있어서 여름도 좋은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싫기도 해.” “가을에는 먹을 게 많아서 좋아. 밤이랑 감도 먹잖아. 그리고 모기도 없어지니까” “겨울은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니까 난 겨울도 좋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매일 매일의 나들이를 통해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과 그 속에서 뛰어놀았던 경험을 통해 자연을 알아간다. 사계절이 있어 다 좋은 아이들...

아이들과 보냈던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딱 놀기 좋은 날씨지만 아침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하다. 자연과학고 나들이와 도시락을 싸서 정상으로 소풍, 어린이회관도 가고 대구지역 연합운동회도 하고... 좀 더 좋은 날씨에 많이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끊임

없이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들이 연신 춤다는 소리를 하며 푸석한 얼굴을 들 만큼 추위는 성큼 그렇게 찾아왔다. 나들이 길에서 신나게 뛰어 놀다가 어느새 입술 위까지 흘러 내린 누런 콧물...발견하면 휴지로 금방 닦아주지만 여러 번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 뻔하다. 앞으로 그러한 날이 더 많아지겠지...올해는 더 춥다던데... 나 또한 다가오는 겨울 준비를 해야겠다.

1. 모둠

이제 따뜻한 차로 바꾸어 마시기 시작했다. 여전히 주말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말로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게임을 만들거나(7세)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다. 상반기 때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던 성희가 부쩍 사실적인 그림(집에 TV, 액자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림-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엄마의 생일잔치 케익 등)을 그리거나 공주를 그리거나 하며 그리기에 많은 공을 들인다. 하선은 단색으로만 “낙서야”하면서 그리던 것이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이건 땅이고, 바다고...”하며 설명을 해준다. 물론 그려놓고 뭔지 잘 모르겠어...하고 배시시 웃기도 한다.

2. 나들이

다시 나뭇가지를 가지고 노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현동이를 시작으로 점점 번지고 있는 중이다. 낙엽이 떨어져 터전 앞이나 빌라 주차장 입구에 많이 쌓여있다. 그 낙엽들을 쓸어다 고무통에 모으기 위해 -낙엽 온천탕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비질을 하고 있다.



도시락데이!! 나눠 먹는 반찬은 완전 꿀맛이지^^



현동 : 내가 가방 들어줄게.
민소 : 아잉~몰라^^



아라방의 세 공주들



낙엽 쓸어 모으기

3. 간식 및 점심과 양치질

아이들이 반찬을 덜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반찬이 좀 남았었는데 반찬이 많으면 밥을 좀 더 덜어 먹거나 아니면 반대로 반찬을 더 덜어 먹거나 하더니 식사량이 많이 증가한 편이다.

밥을 늦게 먹는 편인 5세들은 양치질을 도와주거나 봐 줄 수 있는데 6,7세들은 알아서 치약도 짜고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녀와 어느새 놀고 있다.

지호와 5세들은 아직 포크를 사용하고 있다. 서영이 하선이는 손으로 반찬을 집어 먹을 때가 있어서 젓가락은 아직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젓가락을 쥐고 싶어한다.

간식을 빨리 먹고 또 나가 놀기 위해 오후 간식을 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일부러 조금 먹기도 해서 되도록 나이만큼은 꼭 먹기로 하자고 한다.

4. 낮잠

자고 일어나 “으~~추워.”하면서 한참을 이불 안에서 뒹굴거린다. 2층보다 바닥이 추워서 아이들이 이불을 눈만 내밀고 덮기도 한

다. 잠드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진 대신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한 편이라 좀 더 폭 자고 있는 것 같다. 일어나면 아라방 바구니장 있는 방에 가서 만다라를 하거나 바구니 정리를 한다.

5. 자유놀이 및 또래관계

놀이를 하며 싸우고 금새 화해하고 하는 과정을 하루에도 무수히 반복을 하고 있다. 하선이는 승우, 상화화와 나뭇가지를 들고 칼싸움을 많이 하고 쌀쌀한 날씨에도 옷을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이용한 모래놀이를 여전히 많이 하는 편이다.

성희는 승주와 서영이와 나들이에서 여전히 함께 놀지만 몸집은 작는데 비해 말로 주도를 하는 편이다. 승주가 성희의 놀이를 많이 맞춰주는 편이라면-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금방 오케이하고 관심이 비슷해 보임- 서영이는 하고는 있는데 둘 보다는 덜 몰입이 되는 느낌이다.

지호는 작업-만들기, 그리기 등-을 하는데 몰입하는 시간이 많고 같은 연령의 친구들과 놀이에 드나들을 반복하는 편이다. 두루 두루 골고루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은준이가 7세 형들과 야구에 흠뻑 빠지면서 문경이는 현동이와 마당 낙엽 쓸기를 하여 통에 담은 다든지 나무 막대를 가지고 놀며 안보다는 주로 밖에서 많이 보내고 있다.

영윤이도 찬중, 환주, 현민과 야구를 하며 오전 아침 열기 전, 나들이-공원이나 놀이터를 갈때는 빗자루를 들고 가 배트로 사용함-오후 즉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채원이는 혜승이와 배드민턴을 자주하고 최근 밖에서 시작한 사방치기도 하며 남자 아이들이 조금 시들해진 긴 줄 넘기를 민소, 혜승이와 많이 하고 있다.

6. 안전교육

[목표]기분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구별하여, 싫거나 나쁜 느낌이 들 때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그림자료)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줄 때, 친구와 손 잡을 때, 친구와 즐겁게 병원놀이를 할 때,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껴안고 뽀뽀하려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고 중요한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할 때-느낌이 어떤지 물어 봄
- 터전에 있는 책-사촌오빠가 집에 놀러왔는데 병원놀이를 하자며 내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싫은 표정을 비치자 화를 내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을 읽어줌

읽고 느낌을 물어보고 누군가 우리 몸을 만졌을 때, 또 우리 몸을 볼 때, 기분이 이상하거나 나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에 대해 이야기 나눔

(싫어요, 안돼요 라고 말해야 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해야 해. 등 아이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내는 시간이었다.)

7. 11월은 어떻게 보낼까?

월-주말 보낸 이야기와 차모듬을 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하기, 한 주의 나들이 계획 세우기

화-월요일에 정한 장소로 나들이 가기

수-전체 나들이

그림그리기 만다라를 자연물을 통해 표현해 보기

◎ 선화어린이집 통합 10월 이야기

1. 11일 건강공원

바람에 낙엽들도 많이 떨어지고 나뭇잎들도 변신을 하고 있다. 천에다 여러 가지 잎들로 꾸며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먼저

친구들과 주변을 다니며 재료 찾기부터 하였고 여러 가지 색깔의 낙엽과 깃털, 밤송이들을 주워 담아 천에 붙이고 꾸미기를 하였다. 선화 친구들도 밤송이나 낙엽을 주우며 감촉도 느껴보았다. 모은 잎과 가져온 풀, 크레파스를 이용해 천에 꾸미기를 하고 다한 친구들은 넓은 건강 공원을 뛰어다니거나 맨발로 지압돌을 밟으며 놀았다.





2. 25일 백천동 흙 소리

경산에 있는 도자기 체험장으로 갔다. 선화어린이집과 만나는 덕분에 여기저기 다니는 기회도 많은 것 같아 좋다. 아이들도 들떠서 내내 아기 새처럼 재잘재잘 거린다. 먼저 도착하여 브라우니라 이름 붙인 개와 놀고 그네도 타고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선화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형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고 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선화친구들과 그네도 타고 브라우니도 만지고 사진도 찍은 후 작업실로 들어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컵을 목표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컵에서 밥그릇, 국그릇, 라면그릇, 반찬그릇, 주전자 등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즐거워 보였다. 반면 현우는 흙의 감촉이 좋지 않은지

계속 울었고 상원이는 밑판을 하라고 나눠준 흙을 뭉개어 버려서 새로 갖다 주기도 하고 정아는 흙을 몰래몰래 먹어 선생님이 계속 보시고...나도 상원이의 그릇을 하나 만들었지만 이내 찌그러졌다. 선화 친구들에게 이 시간이 어떤 기분으로 와 닿을까? 현동이 만든 컵을 선화 친구가 아무 망설임 없이 망가뜨렸다. 당황한 표정 역력했지만 “다시 만들지 뭐.”하며 자리로 돌아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잘라진 부분에 흙을 덧댄다. 그 전에도 건빵 브로치를 할 때 현민이가 만든 것을 현우가 그냥 집어 들고 먹은 적이 있다. 현민이는 아무 말도 않고 눈물만 주르르 흘렸다.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아이들이 터전에서 하는 행동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색하지만 내가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제 2012년에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통합 활동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

◎ 7세 -태권 브이방 이야기

1. 놀이(이름이 없는 것은 대부분이 하는 경우)

- 야구 - 이현민, 박찬종, 문환주, 박찬홍(아침 간식 전, 나들이, 낮잠 자기 전, 오후 간식 후 바로 나간다. 즉 하루 종일이다. 배트를 잃어버려 그 역할을 빗자루가 하고 있다, 나들이 갈 때도 빗자루를 짊어지고 간다.)
- 긴줄넘기 - 김민소, 안혜승, 김채원, 박연수(줄돌리기), 박찬종, 박찬홍, 이시훈, 이현민, 문환주 (민소의 뛰어난 실력에 박찬홍 특히 놀랐다. 한번 뛰는 리듬을 익히니

민소 일취월장하고 있다. 계속 줄을 돌려 달라고 양탈(?)을 부린다.)

- 모래놀이 - 권오빈(밖을 나오면 미끄럼 위에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기도 한다) , 이시훈(모래 위에 풀을 심어 숲을 만드는 등 단순한 모래 놀이를 확장시킨다), 김현동
- 막대놀이-김현동(막대를 들고 많이 뛰어다닌다. 위머로 얼굴을 반을 가리고 검객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 역할놀이, 상상놀이 - 김민소, 안혜승, 박연수, 홍소정(동생들도 함께 놀이를 한다.)
-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만다라, 그림
- 종이접기 - 권오빈, 박연수, 홍소정
- 도연과의 데이트 - 박주하(요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 글자쓰기

2. 나들이

- 매향공원, 왕놀이터 : 야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미끄럼틀에서 코스를 정해 기록 채는 게임을 좋아함.
- 자연과학고, 어린이회관, 건강공원, 백천동 흙소리



깃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번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깃털 갖기



아~~조오타!!



어린이회관 교통랜드의 베스트 드라이버



자세 좋고!!

3. 11월의 계획

목, 금요일은 주로 아이의 의논으로 많이 결정한다.

9일 - 경주 계림 여행

•그 외-2013년 나들이 달력 만들기 

요리활동 돌아보기

노승복(씩씩한 나비)

요리활동1-(10월26일)

누런 호박전

언제부턴가 터전에 굴러다니는 누런 호박을 보셨나요? 우리가 직접 기른 호박!! 잎은 된장국으로 끓여 먹고, 애호박일 때에는 볶음 해서 먹고 수확해서는 우리들의 눈을 행복하게 해주고 굴리면서 놀기도 하고 호박 위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 우리를 낳고 나서 힘들어 하신 엄마를 건강하게도 해주고 부은 살 빼는데도 좋고, 이맘때 잘 익어서 수확이 가능한 채소라 꾸준히 먹으면 감기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굽어서 활동하고 맛보기해야 함으로 나비는 호박전을 구웠다. 그래서 각 방 선생님에게 활동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도담방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으로 자른 호박의 씨를 먼저 발라냈다. 손에 힘이 없어서 호박 칼로 호박을 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둘과 래가 함께 손을 잡고 굽으니 줄무늬가 생기면서 호박 살이 굽히는 것이 정말 신기한지 좋아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굽어낸다. 호박을 다 굽고 나서 도담방 친구들은 소꿉놀이로 자기들끼리 손가락을 들고 논다 (나비한테 손가락을 달라고 할 때 호박 칼이

잘 들지 않아 손가락으로 굽으려고 하나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놀이를 하려고~ㅎㅎ) 즉석에서 나비가 만들어준 호박전을 조금만 먹고 아쉬워하며 오후 간식을 기다렸다.

상어방

아이들이 함께 호박을 굽는 것은 즐거웠는데 2인 1조가 되어 1 명이 잡고 한명은 채칼로 굽기도 했다.

굽기 전에 씨를 골라내어 나중에 먹자고 해서 따로 씨를 말려 두었다.

보석방

채희는 집에서 엄마와 해 봤다며 적극적으로 손놀림이 자연스러웠다. 성희와 승주, 서영이도 참여도가 높고 재미있어 했다. 하선의 경우도 손의 힘이 좋아 곧잘 따라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호박씨를 먼저 제거하고 굽는 도구로 호박 속을 파는데 신기해 하며 재미있어 했다. 차람이와 상화는 손에 닿는 느낌이 끈적여서 싫다며 눈으로만 보고 싶어 했다. 수하와 은준이도 처음엔 눈으로만 보더니 이내 해보고는 재미있다고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적극적 이었다.

태권V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마무리하려는 생각도 강해지다 보니 동생들이 마쳐도 끝까지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호박뚜껑이 얇게 될 때까지 굽고 뒷정리도 잘 도와준다. (형님들이라 더 많은 양을 주었다.)

연령별로 하다 보니 서로 손놀림이 비슷해서 서로 도와가며 잘 이루어지고 시식용으로 한 토막 씹 먹고 아쉬움을 표현 했다. 오후간식을 기대하며 ^^ 또한 오후 놀이엔 껌질로 호박 탈을 만들어 얼굴에 대어 어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놀이를 이어갔다.

오전새참

아침이 많이 쌀쌀해져 될 수 있으면 따뜻

한 음식으로 준비하려 한다. 하지만 시리얼이 들어간 찬 우유, 썸이 들어간 차가운 요플레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몇 번씩이고 잘 먹는다. 춥다고 그만 먹으라고 말려도 안 춥다며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는 계속 먹는 아이들이 많다. 따뜻한 죽을 먹을 경우에는 죽 속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가면서 먹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아이들이 콩나물 갱시기를 보고 색감부터 이상하다고 싫어했다. 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한입씩 맛보고는 맛있다고 얼른 먹어 치우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행이었다.

찐 단 호박을 주었을 때 예는 아이들이 처음에 껍질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했지만, 영양과 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며 권유했더니 잘 먹었지만 형님들은 그래도 껍질만 속 남기고 2층으로 도망갔다.

점심

터전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된장! 몇 번이고 먹을 때 마다 아이들 모두 된장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한다. 쌀뜨물에 우려낸 다식물(다시마, 멸치, 새우 등을 넣고 우려낸)에 된장을 풀어 넣으면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구수하다며 후루룩후루룩 잘 마셔 먹는다. 고춧가루를 넣으면 맵다고 잘 먹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먹는 편이다.

멸치조림에 오미자 술을 넣어 비린내를 없애주었더니, 더 달콤한지 지난번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먹어주어서 기뻐다. 작년에 만든 오미자 건더기에 술을 부어 만든 오미자 술을 생선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참기름 대신 들기름으로 반찬을 준비 했는데 더 고소해하고 맛있어 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된장뎡밥! 이상하다 버섯이 싫다고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야채가 섞여있어 골라 내지 못한 채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특히 표고버섯

을 넉넉히 넣었는데 다행히 잘 먹어 주었다. 된장뎡밥은 성공 한 것 같다 ^.^ 긴 나들이 후 늦게 도착해서 배가 고팠던 것인지 신 김치를 씻어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는데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차람이도 한 그릇을 푹딱 해치우고 나서는 나도 김치볶음밥 잘 먹는다며 자랑을 하는 모습이 참 예쁘다. 돈육 수육을 지난달에는 4팩, 이번 달에는 5팩을 사용 했는데도 조금 모자란 듯 하여 다음달에는 6팩을 사용해서 요리를 해 주려고 한다. 함께 준비한 매실로 양념 해준 상추겉절이가 맛있다고 이야기 하며 잘 먹었다.

오후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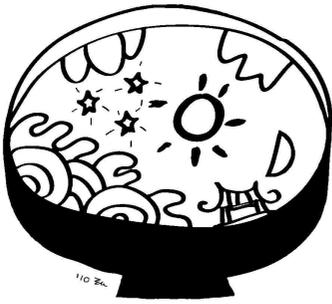
부조된 홍시 한 상자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의 간식시간에 다 먹어버렸다. 또 폭신한 핫케이크에 부조 받은 포도잼을 발라서 주었더니 정말로 좋아했다.

우리 아이들은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한 떡볶이 보다는 쇠고기 버섯과, 다식물로 만든 간장 떡볶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갈끔하고 떡의 쫄깃함이 잘 느껴져서 인지 만들어 줄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다.

또 대추, 간장, 설탕을 달여서 약밥의 색깔을 내고 만든 약밥 속의 들어있는 잣, 호두, 대추, 간장, 설탕, 찹쌀, 내용물을 하나들 알아가며 즐겁게 먹었다.

※ 10월에는 생협 물품 구매 시 채소류의 구입이 힘들어 불가피하게 변경 되는 부분이 있었다. 11월에도 신 김치를 사용하고, 제철인 단호박, 고구마 등을 사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합니다.

※ 이번 달에는 반시. 메밀차, 오징어, 커피. 굴, 사과, 시루떡, 밤을 부조 받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 



씩씩한 맛있는 11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1		2
오전간식			갓죽		닭죽(닭,참쌀).김치
점심			들살이 (도시락.간식) 오후간식:꿀	오전간식:사과 볶음밥 오이피클 김치	
오후간식			저녁간식:가래떡		만두국
	5	6	7	8	9
오전간식	호박죽	새우죽	삶은계란.매실	단호박스프	유과.사과
점심	토란된장국 우엉조림 동태포전	들개미역국 삼겹살구이.조림 오이피클	카레라이스	고등어무찌개 감자볶음 배추겉절이	참치미역국 쇠고기장조림 시금치나물
오후간식	통감자구이	이루다생일	샌드위치	군 고구마	홍소정생일
	12	13	14	15	16
오전간식	토스터	떡국	요플레	쇠고기야채죽	찐단호박
점심	육개장 콩조림 감자샐러드	어묵국 도토리묵무침 멸치볶음	콩나물밥	동태무국 호박볶음 두부양념조림	아욱된장국 돈육불고기 양배추찜
오후간식	어묵탕	오징어야채전	단호박시루떡	전차국수	빵두유
	19	20	21	22	23
오전간식	누룽지죽	모닝빵.과일	고구마스프	참치죽	유부초밥
점심	닭고기국 김구이 도라지나물	키조개미역국 불고기 상치겉절이	야채비빔밥	순두부찌개 어묵야채볶음 숙주나물	복어국 오징어구이 오이무침
오후간식	잡채	이규언생일	간장떡볶이	김치전	청포묵채국
	26	27	28	29	30
오전간식	시금치죽	김밥	단호박스프	찐만두	타락죽
점심	새우튀김계란국 고사리나물 멸치볶음	청국장찌개 고등어구이 콩나물무침	김치볶음밥	소고기미역국 닭가슴살샐러드 연근조림	시금치된장국 진미무침 계란말이
오후간식	고구마맛탕	전감자	쵸코핫케이크.우유	강유채생일	수제비

* 식품원산지 - 쌀,잡곡류.쇠고기(한우).돼지고기=국산 김치(직접담금)-배추.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방과후 10월 교육평가 · 11월 교육계획

김병현, 류선희(해바라기 토토로, 포도)

아이들이 잘 가는 나들이 장소는 천을산과 방과후 공원이다. 요즘 왕 놀이터는 조금 뜸한 편이다. 특히 천을산 나들이 때는 정상 체육시설에서 모여 노는 걸 좋아한다. 특히 평행봉에서 매달려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계속 매달려 올라가기를 애쓴다. 남자아이들은 해군이를 중심으로 잡기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한다. 거기에 가끔 토토로가 술래가 되어 아이들에게 쓰릴을 전해 주기도 한다.

방과후 공원은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우리들만의 장소가 되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올라온 방과후 공원에 아이들이 공을 들고 가서 축구를 한다. 특히 동현이 강민이 석영이가 무척 좋아하고 열심히 공을 찬다. 나머지 아이들도 나무에 매달리고 뛰어다니며 저마다 만족한 웃음을 짓는다.

10월은 아이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나 보다.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곧 풀어지고 화해를 한다.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읽어주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터전 안에 분위기가 웃음과 장난이 있긴 하지만 짜증은 없다.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 치자 염색

아이들과 치자 염색을 하기로 했다. 여러 색깔중 손수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했다. 지난번 황토 염색을 한번 해보아서

인지 아이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포도가 여자아이들과 서문시장 대신동을 다녀왔다. 여자아이들 모두와 지하철을 타고 갔다왔다. 정수아도 함께 갔다왔는데 오빠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손수건을 고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자들끼리만 가는 활동에 이젠 종종 자주 끼어가는 편이다. 예전 처럼 눈물을 떨구며 안가겠다는 반발은 없었다.

포도가 여러 가지 디자인의 손수건을 사왔다. 모두 흰색이나 꽃무늬, 한글 무늬, 스카프 종류도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다 골라왔고 남자아이들은 있는 것에서 고르기로 했다.

치자는 약재상에 가서 마른 치자 2봉지를 사왔다. 두 봉지 다 물에 넣고 끓였다. 한참을 끓였는데 물이 아주 걸쭉하게 나왔다.

막상 염색은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이 고른 손수건을 치자 염색액에 담가 조물조물 주물렸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줄을 서서 손수건 염색을 했다. 전체 두 번 정도 염색을 했다. 정말 예쁜 노란색 손수건이 나왔다.

♥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가다.

2년 마다 열리는 대구사진 비엔날레를 갔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예술 발전소, 봉산문화회관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누어 전시회를 가졌다. 우리는 대

구 문화예술회관과 대구 예술 발전소를 가기로 했다. 이 두곳은 유료 관람을 해야하는 곳이다.

10월 10일 수요일 긴 나들이는 대구 문화 예술회관 사진 전시회를 갔다. 지하철 2호선, 1호선을 타고 성당못역에서 걸어가는 일정이다. 토토로와 포도와 평화로운 방과후에 소나무 이렇게 교사 3명과 아이들 20명이 길을 나섰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따라왔고 대구문화예술회관에 도착했다. 주관사측에서 해설사를 붙여주어서 아이들이 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전시물 설명을 들으며 볼 수 있었다. 진짜 오랜만에 본 아이들이 즐지어 다니며 관람하는 모습이였다. 조용히 관람하는 아이들이 더욱 대견해 보였다.

10월 17일 긴 나들이는 대구 예술 발전소를 갔다. 지하철로 가기엔 먼 곳이라 버스를 타고 서문시장에 내려서 옛날 KT&G까지 걸어갔다. 5층까지 있는 건물 전체가 관람실이였다. 여기서도 관계자분께서 아이들을 이끌고 사진을 설명해 주셨다. 5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전시실을 돌며 관람했는데 아이들은 사진보다는 실제 조형물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3층 부터는 자유 관람을 진행했다. 조별로 3명씩 다니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전시물을 찾아다니며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자 피노키오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아무래도 말도 하고 실제처럼 보이는 작품이 아이들에겐 신기한가보다. 1층 마당에서 달사탕이 만들어주신 꼬마김밥을 먹으며 잡기놀이를 하다가 터전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달랐다. 자기 관심분야가 다르듯이 좋아하는 작품이 달랐다. 움직이는 사물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강한 색채를 가진 작품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종종하는 질문에 색다른 시각을 보

여주기도 했다. 당장에 아이들이 사진 작품을 보고 무언가 변화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관람을 통해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래본다.

♥ 쌀 수확

방과후 마당에 있는 조그만 논에 벼가 완전히 다 익어서 누렇게 변해 있었다. 아이들과 추수를 위해 가위를 들고 벼 이삭만 잘랐다. 그 와중에 나락 한 개씩 까서 먹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고소한가보다. 아이들이 계속 까먹었다. 벼가 자라는 모습을 꼭 지켜본 아이들도 있었는데 벼에서 꽃이 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물론 방과후 모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세하, 찬희, 재욱이는 엄청 관심을 보였다.

♥ 해바라기 대회

요즘 방과후에서는 줄넘기 분위기가 한창이다. 방과후에 등원하면 150개씩 줄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해바라기 대회는 줄넘기를 3분 동안 몇 개 하느냐가 주 종목이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줄넘기 도사가 된듯 하다. 3분 동안 사백 개가 넘는 아이도 있었고 최소 백 개가 넘기도 했다. 힘들어 보였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했다.

그 다음 이어달리기를 했다. 오랜만에 하는 이어달리기에 아이들 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뛰고 싶어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중간에 하민, 장민, 서준, 찬우가 다른곳에 갔는데 이어달리기를 안해서 몇몇 아이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공평이란 의미에 대해 재욱이랑 한참을 이야기했다. 무조건 공평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 강민모와 의자 만들기와 합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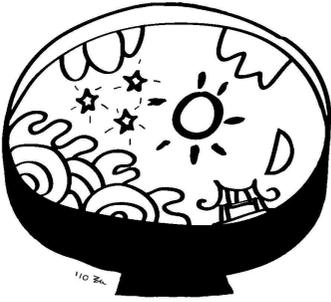
여자아이들의 은근한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의자 색칠하기를 하고 마무리 마감제 칠하기를 했다. 여자아이들의 꼼꼼함을 상기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예쁘게 색칠을 했다.

남자아이들은 강민모가 준비해온 10센티 짜리 합판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

렸다. 남자아이들의 색감이 놀랄 정도로 잘 하기도 했고 그냥 대충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남자아이들 전원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렸다. 진지한 아이들은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완성했다. **해**

♥ 해바라기 방과후 11월 계획표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 고산초 학예회 개인활동	2 아마 활동	3
2주	5 만다라	6 천을산	7 방과후 공원	8 개인활동	9 풍물연습	10
3주	12 남녀활동	13 천을산	14 영남대	15 개인활동	16 등근모듬	17
4주	19 만다라	20 천을산	21 박물관	22 개인활동	23 풍물연습	24
5주	26 해바라기 대회	27 천을산	28 중앙도서관	29 개인활동	30 요리활동 새알수제비	



해바라기 맛있는 11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1	2
점심					
간식				잔치국수	궁중떡볶이
	5	6	7	8	9
점심					
간식	만두국	오징어부추전	유부초밥	핫케익	최문영생일
	12	13	14	15	16
점심					
간식	감자수제비	스파게티	김치주먹밥	야채스프모닝빵	닭죽
	19	20	21	22	23
점심					
간식	두부김치	군고구마	샌드위치	과일요플레	찜빵
	26	27	28	29	30
점심					
간식	새알옹심이	어묵탕	프렌치토스트	호박죽	정수아생일

* 식품원산지 - 쌀,잡곡류,쇠고기(한우),돼지고기=국산 김치(직접담금)-배추,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터전 소식

박지영(해바라기 한서준 엄마)

1. 대구 사진비엔날레에 가다

‘사진다움!(Photographic!)’이란 주제 아래 대구문화예술관, 예술 발전소, 봉산 문화회관 등에서 사진비엔날레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대구에 큼직큼직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네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구시민, 국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리라 믿습니다. 다소 실험성이 강한 사진과 영상이 많았던 탓에 아이들이 작품에 매료되기에는 어려운 전시회였다고 합니다. 2D 사진 보다는 3D 모형물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피노키오처럼 생긴 모형물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모형물에 있는 자판을 이용해 질문을 입력하면 피노키오 모형이 눈을 깜빡거리며 대답하는 것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 했나 봅니다. 아직 아이들의 발달단계상 2D 예술 작품은 이른 걸까요? 아님...전시회를 다닐 기회를 자주 없어서 그런 걸까요?



2. 강민이와 엄마는 동상이몽(??)

여전히 씨름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이입니다. 이제 적당히 힘이 오르고 자신의 힘을 테스트 해 보길 원하는 아이들에게 덩치만 큰 서준이가 가장 인기(?)가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덩치로만 보자면 서준이를 이길 아이는 아마 해군이밖에 없을 듯 하지만 하민이도 서준이를 이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서준이를 상대로 힘을 기른 강민이가 석영이와 씨름을 하다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합 도중 강민이가 팔을 접질린 채 넘어졌는데 그 위로 석영이까지 넘어져 팔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어 반 깁스를 3주 정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 깁스한 강민이는 모두의 우려를 한방에 날려 버린 체 한 손으로 흔들흔들 균형 잡아 가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심지어 줄넘기까지 거뜬히 해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주 신이 났답니다. 깁스 핑계 삼아 피아노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면 신이 났는데 애가 탄 엄마는 멀쩡한 오른손만으로 연습해도 되니 피아노 계속 치자며 꼬드기고 있습니다.

3. 하민이와 장민이의 실종 사건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대구 사진비엔날레 대구예술발전소에서 한껏 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시다. 요즘 들어 돌만의 대화로 다른 친구가 끼어들 틈도 없다는 찰떡궁합 친구 하민이와 장민이! 그 날도 돌만의 얘기로 이야기꽃을 나누던 하민이와 장민이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지하도로 내려가 지하철역으로 향한 앞선 일행을 그만 놓치고 말았나 봅니다. 장민이와 하민이는 순간 당황한 채 길을 잃어버린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참나 ~~어이없게도 아이들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지나가던 어른들이 다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요? 하민이가 계속 울고 있으니 어떤 인정스런 할머니가 아이들 딱한 사정을 듣고는 장민부에게 전화도 해주고 아이들을 인근 파출소까지 데려다 준 모양입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아이들을 안정시키느라 편안하게 말도 걸어주며 음료수도 주고 수갑 채우기 시연도 보여주고 그랬나 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더니, 아이들의 기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깜짝 놀란 상황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지점을 고수하며 정확하게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까지 제대로 알고 도움을 청하였으니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놀란 가슴 쓸어내리지만, 아이들로선 큰 경험을 한 모양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준 건 당연하구요. 그 다음 나들이부터는 하민이가 하랑이 손을 꼭 붙들고 다니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알아서 이름표 달고 서로 손잡고 다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안전교육의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4. 참고로 나들이 행동강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나들이시 교사보다 앞서 가지 않고 뒤쳐져 가지 않는다.
- (2)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두 모인 후 함께 건넌다.
- (3) 지하철을 탈 때는 첫 번째 칸에 탄다.
- (4)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며 서로 추월하지 않는다.
- (5) 에스컬레이터 혹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뛰지 않는다.
- (6) 버스 승차시 뒤편으로 가서 차례대로 앉는다. 앞줄에 앉으면 내릴 때 친구를 놓칠 수 있으므로...

5. 배추벌레 낚시터

텃밭에 심어 놓은 배추에서 우연히 발견된 배추벌레!

흠...아이들 손에 잡힌 배추벌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배추벌레 달리기, 배추벌레 등반대회, 배추벌레 농장만들기, 배추벌레 수영대회...이리 저리 갖고 놀다 우연히 미끼로 희생되어 낚시놀이로 발전됩니다. 설마 했더니, 글썽 그 배추벌레 미끼를 어설픈 연못 물고기가 덥석 물었다지 뭐니까? ㅋㅋㅋ 아마 눈먼 봉사 물고기였나 봐요?

아이들 등살에 이젠 배추벌레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6. 풍성한 가을~~줄 잇는 부조

풍성한 가을이라 그런지 포도, 홍시, 고구마, 감, 사과 등 유달리 부조가 많았던 달이라고 합니다. 지면을 빌려 부조하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일 부조뿐만 아니라 재능 부조도 있어요. 강민모가 격주 금요일마다 터전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의자를 함께 사포질 한 후 아이들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했습니다. 밋밋하던 나무의자가 전문 예술가도 울고 갈 멋진 예술작품으로 탈바꿈 했어요. 처음엔 여자 아이들만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 하였고 남자 아이들은 “그런 건 여자 아이들 놀이예요”하며 비웃듯 고초에 죄다 놀러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수아는 어딜 선택 했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ㅋㅋㅋ

드려 완성된 의자를 보더니 서서히 남자 아이들 중에서 관심을 보이며 고초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때다!” 때를 포착한 강민모는 터전 목수(?)로부터 손바닥만한 판자를 구해 남자 아이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요거 만만해 보이지? 그러니 그냥 맘대로 그려 봐~”. 남자 아이들은 축구공이나 야구공, 자기 이름 등을 그려 넣으며 꽤나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특히, 찬희는 굉장히 매료되어 작업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젠 강민모 힘들어도 발 빼기 힘들 것 같아요~~책임져용~~*^^*

계속 되는 재능 부조 기대해 봅니다.

7. 그리고 못다한 얘기들...

치자 열매 삶은 물로 한글날 맛이 염색을 했습니다. 손수건과 스카프를 임의로 고로 염색을 했는데, 황토염색 후라서 그랬는지 아이들이 아주 능숙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고초 학년별 체육대회에서 터전 아이들이 줄넘기 부문을 죄다 휩쓸고 왔다고 합니다. 당분간 터전에서는 줄넘기 열풍이 이어질 듯 합니다. 하민이는 그림동화책을 만들어 읽어 주기도 하는데 장민이가 가장 열성적인 애독자라고 합니다.

이상 터전살이 후기 마칩니다. 글 솜씨 없어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자며 어찌어찌 적기는 했습니다. 아휴~진짜 부끄럽네요. 뭐랄까? 마치 내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이랄까요? 글 잘 쓰시는 분이 너무 많은 곳이라 소식지에 터전후기를 실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되어 머리가 한 움큼 빠졌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아마 제 심정 이해하실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이젠 내 글솜씨가 흥이 되어 더는 글청탁을 받는 일이 없겠지요~~



2013년 신규조합원이 될(?) 가족들을 미리 만나보다

이상영(씩씩한 이하람 아빠)

[프롤로그]

대기자 주차안내가 필요하다는 은준 아빠의 부탁전화를 받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평소 즐겨입지도 않던 하얀색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본의 아니게 대기자분들과 얼굴을 대하는 첫 조합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석 창문 안으로 보이는 대기자 아빠 엄마들의 긴장된 얼굴에서 기대와 함께 주말의 안락함을 뒤로 한 아쉬움 또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헤르만헤세가 자신에게 없는 감정을 상대로부터 읽어낼 수는 없다고 하였던 것처럼 어찌하면 제가 2년 전 이맘 때 그랬던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스케치를 대기자의 입장에서 해보면 어떨까 문득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도 한 때는 대기자였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가상의 인물을 통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3류소설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 글의 형식은 10월 소식지에서 기연이의 입장이 되어 터전소식을 멋지게 전해 준 기연엄마에 대한 오마주임을 미리 밝힙니다.

[본문]

나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다. 아내에게

살갑게 대하려다가도 겸연쩍어 그러지 못하지만 두 딸아이에게만큼은 더없이 좋은 아빠라 자부한다.

대기자설명회 날, 집은 가깝지만 일부러 차를 몰고 일찍 도착했다.

왜냐하면 차 안에서 대기하며 주위분위기도 읽으며 시간 맞춰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그런데 웬걸, 좁은 골목 앞 '대기자설명회 현수막' 아래 이상하게 생겨 멀건 조끼를 걸친 한 아빠가 주차안내를 해준답시며 접근한다.

이런! 어쩔 수 없이 남은 시간 차 안에 있기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만 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억지미소를 보이며 그 날 하루를 시작했음을 기억한다.



막상 도착한 곳은 교회다. 순간 뭔가 일이 꼬인 건 아닌지...

이상한 종교단체에 걸리고 만 건 아닌지 찰나의 불안이 엄습했다.

하지만 대기자담당이라는 한 옛된 미소의 여인을 보자 긴장을 이내 풀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전화통화로 얼마나 용기를 북

돌아주고 상냥하게 응대해주었던가...



자리에 앉아 준비된 꿀과 하트모양의 떡을 아이에게 먹였다.

보아하니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든 떡인 것 같다.

맛도 좋아 금방 동이 나기 전에 하나 더 챙겨놓겠다는 유치함이 고개를 들자 스스로를 자제시켜본다.

아니나 다를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을 안 건 그리 오래지나지 않아서이다.



인상 좋은 한 분이 나와 설명회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동육아' 터전생활에 대해 조목조목 설을 푸는데 하나같이 인상이 선하고 좋은 느낌이다. 선생님들을 보니 일단 안심이다.

영상자료를 함께 보는데 당시 영상에 담긴 아이들 모습을 기억에 저장하는 듯한 피

부가 유독 흰 조합여성 한 분의 축축한 눈망울이 인상적으로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장발의 장신 한 분이 강대상 앞에 서며 하는 한 마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들으셨던 공동육아안내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무조건 맞는 겁니다."

뭐지;; 이걸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성경을 들고 하던 말과 오버랩되는 기시감에 집중하던 눈이 풀려 시야가 확대되자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이 재차 떠올랐다.

주위분에게 물어보니 저 분의 직업이 목사수라는데 목사를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헷갈리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도 잠시! 미리 준비해 온 터전의 월계획표에 적힌 '방모임', '마실', '소모임'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알같은 실례들을 더하면서 웃음유발과 함께 좌중을 휘어잡는다.



이 곳에 와서 평소 덜 쓰던 미소근육을 무리하게 써서인지 입 가장자리로 미세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지만

이젠 자연스러운 웃음에 이어 폭소까지 곳곳에서 터져나오니 토요일의 안락함을 뒤로한 오늘 설명회! 참 잘 왔구나 싶다.

그렇게 공동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움 받고 출자금 등에 관한 구체적 재정에 관한 설명까지 듣고서 기분 좋게 설명회장을 나오려고 엉덩이를 들었다.

그런데 깜박하고 있던 게 생각났다. 두 딸 아이. 나의 금지옥엽!

너무 큰 긴장에 이은 갑작스런 긴장해소에 그만 아이들을 잊고 있었던 자신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심장이 날뛰려는데,

교회 앞 '터전'이라는 곳에서 신나게 호미로 다른 아이들과 모래 위에서 집짓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다.

그 뒤에는 여러 아빠엄마들이 흐뭇한 미소로 같이 놀아주고 있다. 아이들 오줌 지린다고 뭐라 했건만 오늘 내가 그 지경이 될 뻔하였다.

그리고는 '씩씩한'터전이란 곳을 둘러보았다.

누추하다 설명들었건만 막상 보니 정겹고, 창문 틈 사이로 노린재 한 마리가 기어들어 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도 함께 떠오른다.

좋다. 이 곳!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워보고 싶단 생각이 샘솟다 못해 펄펄 넘친다.

그런데, 지금껏 내가 어린이집을 고른다고만 생각했지 미처 하지 못한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 면접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기존조합원과 대기자가 서로를 면접본다고 하지만 분명 아쉬운 쪽은 들어가고자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아닌가란 생각이 드니 솔직히 무거운 마음이다.

와이프랑 연애시절이 떠오른다. 정작 서로 좋아야 맺어지는 거라하지만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쪽이 나였음이라...

그 이후로 나의 좌우명은 '갑으로 살자'이건만...행사하는 갑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갑을 의미하였건만, 이 곳 '공동육아'의 문 앞에서 여지없는 을이 되고야만다.

그렇지만 난 도전해보고 싶다. 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좋은 먹거리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말이다.

그럼, 면접 잘 봐야하는데...자신을 포장하고 싶진 않지만 그 속인 모습이 내가 바라는 자화상이라면 한 번 스스로를 조금은 속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도 같다.

여튼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 생산되며, 양손에는 아이들의 손들을 각각 잡고는 '해바라기'방과후에서 '바자회'가 이어진다는 말에 졸래졸래 또 따라가본다.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어우러져 한 때 애지중지하던 옷과 장난감 등을 내놓고 100원부터 1000원, 3000원 등에 판다.

아이들은 책을 통한 단순한 간접경험이 아닌 여기서 자신의 딱지를 팔아 직접 경제를 배우는구나싶다.

조금은 내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 찰나!



창문 틈 사이로 멋진 건축물이 하나 보인

다. 이 곳, 방과후 아이들 중 미래의 건축가가 있는 모양이다.

나도 한 때 꿈꿨지만 주위의 시선에 이끌려 이루지 못했던 어릴 적 꿈이 떠오르니 새삼스럽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위가 요구하는 꿈이 아닌 그들 자신만의 꿈을 꾸게 지원해주고 싶다고 다짐해본다.

아...벌써부터 면접 날이 기대와 불안으로 기다려진다.

[에필로그]

대기자설명회 스케치를 부탁받고 마감 당일 새벽에 깨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되지도 않는 소설을 써보고 나니,

본문에서 주인공이 왜 아이들을 공동육아에 보내고자 했는지 이유조차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허락된 지면의 양이 넉넉하지 않아서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저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사연은 제각각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사족을 더하자면, 하트떡은 은준엄마작품, 건축물은 해군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다엄마의 촉촉이 눈망울은 저와 '집값 걱정으로 이사할 집이 마땅치않다'는 생각을 공유하던 순간의 우연적 발생을 통한 연쇄적 하품의 공유에 기인한 결과물이 아닌가싶습니다.(루다엄마 죄송^^)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신입이 될지 모를 대기자의 눈에는 재각각 그들의 눈을 통해 그들만의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생각해 보니 우리모두가 의미있는 얼굴마담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멋진 신입조합원 가족들과 소중한 기억 함께 나누고 그 모습들을 예쁘게 간직하며 성장해 나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이어 면접까지 수고하신 많은 조합원분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날적이 훑아보기 (훑아보기란 구석 구석 꼼꼼이 살펴보기' 라는 우리말)

밥을 많이 남긴 날

(해바라기 전하민 일기)

전하민(해바라기 1학년)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날씨 맑음

제목 : 밥을 많이 남긴날

학교에서 점심때 급식을 먹었다. 그런데 내가 좋아 하는건 탕수육과 김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김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배추맛 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탕수육을 다먹고 고추에 도전했다. 고추는 큰거 하나와 작은거 두개였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먹으려 했는데 맛이 어떤지 불려고 큰걸 하나 먹었다.

그냥 먹으면 매울것 같아서 밥과 같이 먹었는데 고추는 맵지 않았는데 맛이 정말 없었다.

밥도 내가 싫어하는 비빔밥이라서 마음속으로 "우웬"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삼켰는지 목에 걸린것 같았다. 국물은 반틈만 남겼고 밥, 김치, 고추작은거 2개를 갈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남기라고 하셨다.

그래서 밥을 만드신 분에게도 쯤 죄송했다.



편집후기

오현석[오은준아빠]

이번에도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또 하나의 소식지가 나왔네요 방모임말고도 보시고 있는거 맞죠???

이옥희 [김지호엄마]

병상에서도 소식지 여는글을 써주신 해군수아 아빠께 감사드리고, 바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이 있으셔도 해바라기 터전 소식을 기꺼이 써주신 서준엄마께도 감사드리고, 선생님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신 돌고래 윤아엄마께도 감사드리고, 이번 달 씩씩한 터전 소식을 못써주시는 대신 11월, 12월 터전 소식을 써주시기로 미리 예약해주시신 준서엄마, 유채엄마께 감사드립니다. 아~~또 터전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10월달엔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네요....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벌써 2012년의 막바지...11월 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 되려나 봅니다. 연말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추워지는 날씨 모두들 건강하세요~

신미정 [김동현엄마]

입원 중인 해군수아아빠께 여는글을 청탁하기로 홍보소위 회의 때 결정하고 나서, 누군가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글을 부탁하는 건 너무 한 일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싹뺐

했습니다. 써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지만 정말 너무나 일인가 하고 혼자 갈등이 잠깐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후 밤에 부탁드렸는데, 다음날 오후 4시에 글을 다써서 메일로 보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아호~ 이렇게 하루 만에 글을 써주시는 분들은 보통 홍보소위 경험상 성격이 깔끔한(?) 분들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에 미루지 말고 생각 났을 때 바로 해결하자는 분들이 아닐지? 여하튼 병상에서 일찍 글을 써보내 주신 해군수아아빠께 감사드립니다. 또하나, 병상일기를 공동육아의 경험과 빗대어 써주신 아이디어에서 터전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감동이었습니다.

이미지 [정강민엄마]

강민이가 어느날 석영이한테서 받은 초코렛을 받고서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같이 씨름을 하다가 팔을 다친 강민이에게 미안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다친 날 우는 강민이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석영이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강민이 주려고 주머니에 초코렛을 볼록히 넣고 해바라기로 왔을 석영이, 너무 이쁘죠?

김미재 [김지오엄마]

깊어가는 가을 행복하세요.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94호

- 발행일 2012년 10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이옥희, 김덕춘, 신미정, 황성원
장순향, 김미재, 이미지, 박지영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